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8호 [루계 제2476호]

주제 107
(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음력 1월 1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사설 **절세 위인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통일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광명정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며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일떠세울 의지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통일위업실현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영원한 통일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핵,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그 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저작물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헌법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식화하시어 나라의 통일 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 5대 방침도 제시하시었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펼친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뜨거운 민족애와 애국애족의 대응단,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케 하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자주통일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며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한 자리잡은 우리 민족끼리님,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자주사상과 민족대단결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복의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을 따듯이 안아 단합의 태오에 내세우시어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 동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어 뜻깊은 대화도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오늘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

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업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차게 이어지고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주석님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저작물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

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을 제시해주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은 민족은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가 운명도 미레도 다

말기고 받들어야 할 민족의 대영웅,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의 사상은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고 그이의 령도는 민족을 평화번영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한 령도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외세에 추종하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절세위인이 계시고 불멸의 통일대강이 빛을 뿌리고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자주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온 겨레의 넘원이 꽃피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남조선 방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온 민족은 조선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다칠수 없는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애국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단합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가 관계개선과 통일로 끝없이 이어져가게 하여야 한다.

만나자 정이 통하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 겨레이다. 《아리랑》노래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을 앞세우고 진행된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 공동일장과 공화국에출단의 축하공연, 너차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 경기,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 등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떨어져 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다시금 눈물겹게 절감했다.

그 어떤 외세도 화해와 관계개선으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다.

외세를 믿을것이 아니라 뜻과 정이 통하고 통일이 같이 살아야 할 동족을 믿어야 하며 통일의 기치아래 북남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에국의 열풍이 차고넘쳐던 6.15시대처럼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마련해가야 한다.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에 단호한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민족분열의 원흉인 미국은 오늘날도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가로막으면서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과 전쟁을 꾀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화해의 훈풍이 불고있는데 대해 미국은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망조하여 《북핵폐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앙탈질하며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들이밀며 핵전쟁의 불구름을 시시각각 몰아오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도 공화국의 성의있는 조치들과 노력에 대해 《체제전진을 위한것》, 《위장평화공세》라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있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책동을 준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중공책동을 반대하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외세에 추종하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절세위인이 계시고 불멸의 통일대강이 빛을 뿌리고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자주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온 겨레의 넘원이 꽃피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남측지역을 방문 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2월 12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측지역을 방문 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취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대표단 성원들과 수행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과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표단성원들과 수행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로고를 높이 치하하시고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참가와 청와대방문을 비롯한 활동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명을 받고 활동한 김영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대통령을 비

롯한 남측고위인사들과의 접촉정형, 이번 활동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측의 동향 등을 원수님께 자세히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표단의 귀환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남측이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측 성원들의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고 편의와 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였다고 하시면서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금후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위급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남측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남측지역에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만 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은 공연준비기간 여러차례 훈련장에 나오시여 곡목선정으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를 몸소 지도하여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사무치게 그리며 최고의 공연성과를 위해 혼신을 다하던 잊을수 없는 시간들을 되새기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훌륭하고 감동적인 공연활동으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과 민족

의 화합을 념원하는 우리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준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로부터 공연장분위기와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문재인대통령내외를 비롯하여 남녘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높은 예술적기량과 성실한 연주자세로 짧은 기간에 공연을 준비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한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에게 감사사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제22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명 30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고 사회주의위업을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신뢰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세차게 분출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불개 피어난 불멸의 꽃들마다에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만민의 뜨거운 지성의 세계가 어리여어 축전장은 흠모의 열기로 더욱 끓어번지였다.

태양칭송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주체조선에 만발한 김정일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전에는 무력,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수만상의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 인사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위인칭송의 꽃들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이 13일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였다.

개막사를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 위원회 위원장 김창도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강용한 기상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과 태양의 존함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마다에 정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모두의 크나큰 자랑이고 더없는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과 함께 전국 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가 열리며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쳐호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축전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 령도업적을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

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고결한 총정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돛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가 주악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영원한 2월의 태양찬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이 땅에 위인찬가, 태양찬송의 노래가 울려지고있다.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나라 인민이 드린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메아리친다.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불타고 다함없는 흙과 청송의 마음으로 심장이 뛸듯게 하는 노래, 이 노래 부르는 가슴마다에 그 이름도 그 이름도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뜨겁게 떠오른다.

광명정절을 맞으며 사람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위인은 사상이 명도, 덕담과 업적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위대한 장군님처럼 한평생 자신의 온기를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나신 그런 위인은 없는것이다.

일찌기 나라없던 그 세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조건을 빛내일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시기를 위하여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분투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지구돌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610여리의 장정을 걸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영상을 우리들머리 지금도 잊지 못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나날들이다. 남들같은 열백번도 더 주저않았을 엄혹한 시련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였더라면 아마 조국은 빛을 잃게 되었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대극상과 련이은 자연재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은 오직 권력강화에 있다는 철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드셨다.

그이께서는 전선에서 전선에 조종무진하시며 인민군대를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어느해 뭉뚱 겨울날이었다. 최전연치고도 제일 멀고 험한 곳에 위치한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병사들은 너무도 기본 사실에 와하고 환성을 올렸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온통 길이 막혀버린 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부대를 찾아오셨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타고오신 차를 보는 순간 병사들은 굳어졌다. 승용차는 분명한대 도대체 형태를 알아볼수 없었던것이다. 조금 드러난 앞차창과 전조등불빛만 아니라면 갈데없는 눈무지였다. 바로 이렇

게 헤쳐가신 길이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었다.

주제85(1996)년 3월 어느날 온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고 달린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이어나신 권력강화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그이께서 아버지주석님을 모시고 인민군부대에 대한 력사적인 첫 부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다녀가신 인민군대의 단위는 무려 5200여개에 달한다.

국적이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

는 력사의 교훈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새기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케 하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강력한 군사적담보 밑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었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뱀장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의 격전장들을 현지도도하시였으며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삼복칠강행군을 이어나신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앉장에서 헤쳐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하하여 이 땅에서 세기적의 의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었다.

은 나라를 총칭무진하시며 인민의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키신 장군님의 로고속에 조국의 위방의 뱀장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의 격전장들을 현지도도하시였으며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삼복칠강행군을 이어나신 장군님이시였다.

명성제역소, 원산제역소, 어대진청년제역소와 같은 제역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아버지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공화국땅에서는 최첨단돌과전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고난의 나날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삼가 드리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내게 수호하시고 이 땅에서 인민의 락원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정성이며 그이께 운명과 미래를 맡긴 민족의 기쁨과 감격, 환희의 분출이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이 노래 메아리치는 곳에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을 끈끈케 하는 정의의 보검이 더욱 억척같이 버러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일대 양양이 일어났다.

남양의 한 동료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민족이 안아올린 또 한분의 태양을 칭송하는 노래로서 부르던 부를수록 힘이 솟아온다. 가사를 새기며 부르드라면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생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한생을 강그리 불태우신 그 로고와 고귀한 업적이 눈앞에 어려와 저절로 눈시울을 적시군 한다. 노래는 민족의 은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민족의 드림없는 소망이 담긴 영구불멸할 태양찬가이다.》라고 격정을 러치였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도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였다.》, 《세계적주위업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사회주의위업,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것이다.》고 칭송하였다.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난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탈과 같이 강그리 태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며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에서 민족의 맑은 래일을 보며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으로 빛나는 2월의 태양찬가는 영원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분렬을 제일 가슴아파하시며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다 바치시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절세의 애국가, 조국통일의 영원한 구성이시였다.

통일조국건설을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조선은 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념이고 의지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사람이므로 민족의 분열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며 조국통일위업을 마모고 뜻을 둔 사람이야 애국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가라고 하시였다.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소망을 헤아리시고 민족의 중대사를 한몸에 안으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겨레를 조국통일성업실현으로

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겨레를 조국통일성업실현으로

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진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휩쓸 6.15통일시대 내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 이였다.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통일연속뿐이다.》... 6.15통일시대에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종 인민들이 터친 총격과 감동의 목소리들은 오늘도 생동하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온 겨레를 이끄시는 길을 밝히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진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휩쓸 6.15통일시대 내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 이였다.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통일연속뿐이다.》... 6.15통일시대에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종 인민들이 터친 총격과 감동의 목소리들은 오늘도 생동하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온 겨레를 이끄시는 길을 밝히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통일을 위해 쌓으신 크나큰 업적

불러일으키시였다.

조국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여기에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애국심과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힘을 합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그의 확신이 어리었었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

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겨레를 조국통일성업실현으로

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진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휩쓸 6.15통일시대 내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 이였다.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통일연속뿐이다.》... 6.15통일시대에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종 인민들이 터친 총격과 감동의 목소리들은 오늘도 생동하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온 겨레를 이끄시는 길을 밝히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수기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신 은혜로운 사람

뜻깊은 광명정절을 맞으며 만수내년터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이께서는 력사를 엮느라니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글줄부터 앞서 펜을 들었다. 온 나라 인민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어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셨다.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병들고 늙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었다. 혈육도 없고 따뜻한 제 집도 없이 하루하루를 고독하고 힘들게 보내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공화국으로 데려오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일을 하였으면 얼마나 하였겠는가. 감옥에서 량심과 지조를 지켜 끝까지 투쟁한것뿐이다.

그런데 헌없이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가, 혁명가로 불러주시고 우리모두를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남조선에서와 같이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하시며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시에는 북과 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시고 함의를 보시어 6.15공동선언의 한개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엄숙히 선포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사랑에 의해 한두명도 아닌 60여명에 달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그처럼 꿈에서도 그리던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들이 지옥에서 락원으로 오게 된것도 꿈만 같은 일이고 최상의 행복인데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에서 부리운것 없이 살며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거듭 거듭 사랑을 주시고 온갖 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과 같고, 그들을 금방씩에 앉히고싶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생활하도록 보살펴주시었고 우리들의 몸건강을 위하여 진귀한 고약과 보약제들도 보내주시였다.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드리고 오복을 보내주시고 삼복철에는 몸보신에 특효인 단고기름 맛보도록 해주시고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다심 한 그 은정을 어찌 능히 줄이 들 어간들 잊을수 있느냐.

나는 어렸을 때 집이 하도 가난하여 밥고루에 올려놓은 삶은 닭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하시며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시에는 북과 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시고 함의를 보시어 6.15공동선언의 한개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엄숙히 선포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사랑에 의해 한두명도 아닌 60여명에 달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그처럼 꿈에서도 그리던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들이 지옥에서 락원으로 오게 된것도 꿈만 같은 일이고 최상의 행복인데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에서 부리운것 없이 살며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거듭 거듭 사랑을 주시고 온갖 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과 같고, 그들을 금방씩에 앉히고싶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생활하도록 보살펴주시었고 우리들의 몸건강을 위하여 진귀한 고약과 보약제들도 보내주시였다.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드리고 오복을 보내주시고 삼복철에는 몸보신에 특효인 단고기름 맛보도록 해주시고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다심 한 그 은정을 어찌 능히 줄이 들 어간들 잊을수 있느냐.

나는 어렸을 때 집이 하도 가난하여 밥고루에 올려놓은 삶은 닭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하시며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시에는 북과 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시고 함의를 보시어 6.15공동선언의 한개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엄숙히 선포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사랑에 의해 한두명도 아닌 60여명에 달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그처럼 꿈에서도 그리던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들이 지옥에서 락원으로 오게 된것도 꿈만 같은 일이고 최상의 행복인데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에서 부리운것 없이 살며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거듭 거듭 사랑을 주시고 온갖 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과 같고, 그들을 금방씩에 앉히고싶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생활하도록 보살펴주시었고 우리들의 몸건강을 위하여 진귀한 고약과 보약제들도 보내주시였다.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드리고 오복을 보내주시고 삼복철에는 몸보신에 특효인 단고기름 맛보도록 해주시고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다심 한 그 은정을 어찌 능히 줄이 들 어간들 잊을수 있느냐.

나는 어렸을 때 집이 하도 가난하여 밥고루에 올려놓은 삶은 닭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하시며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민족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로고와 심혈이 어린 조국통일5대방침이 제시되고 해내의동포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이 일고있던 주제(1973)년 6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만나시어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이 애국애족적인 통일방안을 그 누가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애국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통일을 원한다고, 조국통일은 참말로 민족의 량심이 가라키는 애국위업이라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었던 그이께서는 이어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기가 닥쳐온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통일을 원하고 분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데 뭉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과 물리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축국정기를 통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외교를 고조시켜나가는 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경기명칭도 《북남 통일축국경기》로 뜻이 깊게 담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얼마후 북과 남의 축국선수들이 서울과 평양을 래왕하며 민족의 깊은 관심과 열면 기대속에서 통일축국경기를 의미있게 치르게 되었다. 《통일축국 라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마음에 꼭 드는가.》, 《축국경기도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뜻으로 한다는데는 정말 심장이 동하고 눈물이 쏟아진다.》

당시 축국경기에 대한 남북동포들의 소감이다.

본사기자

김동기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감동의 순간들이었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불신의 장벽에 막히워 멀게만 느껴지던 북과 남이 가슴을 열고 만나고 화해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지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펼쳐지고있는 민족적화해와 관계개선의 극적인 흐름은 온 겨레

잡은 손 놓지 말고 통일의 그날까지

의 가슴마다에 봄의 훈향마냥 따스히 스며들어 민족의 밝은 미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한껏 실어주고있다.

대규모사절단의 평창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과전과 특히 고위급대표단의 활동은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실증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일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친서를 전하고 문재인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나 당사자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층욱한걸음 나갈 의지를 표명한것은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희망의 불길을 지펴주고있다.

심지어 올림픽경기대회마당에서까지 심술바르지 않게 놀아내고 있다. 그러나 불신과 대결의 얼음을 녹이고 민족적화해와 협력, 관계개선과 통일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누구도 막을수 없고 거세할수도 없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것은 자연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겨레가 바라지 않는 불신과 대결의 긴긴 어둠은 신뢰와 화해, 단합과 통일의 빛에 자리를 내어줄수밖에 없다. 이제는 분열 70년도 지났다. 더이상 머물수 없는 통일이다. 화해와 관계개선은 민족사의 절박한 요청으로 되고있고 시대의 큰 울림으로 되고 있다.

민족의 이 요구를 북남당국이 현실로 만들어가야 하며 또 그렇게 가고있다.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세계의 이목과 3만 5 000여명 관객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남조선에서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성원들과 남조선의 대통령이 뜨겁게 손을 잡았다. 순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자석이라도 끌린듯했다. 화해와 감격의 세찬 울림이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을 격동시켰고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이를 《역사적인 악수》로 평하면서 북과 남이 파괴가 아니라 평화를 뜻하는 올림픽불꽃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화합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이제는 고통의 세월, 안타깝고 가슴아픈 분열의 세월이 이 땅우에서 70여년간이나 흘려왔다. 그 기간 다가섰다가는 멀어지고 또 쏠리는 정을 안고 굳게 잡았던 손을 맥없이 놓아버리며 진통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북과 남이었다. 지난 10년간 북남관계는 최대로 악화되어왔다. 핵전쟁위협은 점점 현실적인 위협으로 박두해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것은 자연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겨레가 바라지 않는 불신과 대결의 긴긴 어둠은 신뢰와 화해, 단합과 통일의 빛에 자리를 내어줄수밖에 없다. 이제는 분열 70년도 지났다. 더이상 머물수 없는 통일이다. 화해와 관계개선은 민족사의 절박한 요청으로 되고있고 시대의 큰 울림으로 되고 있다.

만나면 하나가 된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지금 손을 맞잡은것은 북남의 당국만이 아니다.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뜨겁게 합쳐지고있고 하나로 되어가고있다. 경기장들에 휘날리고있는 통일기는 북남의 겨레가 통일소원안고 휘날리는 기발이다. 경기장과 스키주로를 가득 메우는 열띤 응원 함성은 북남이 힘을 합쳐 통일로 가자는 겨레의 피타는 가슴속 웨침이다.

만나면 하나가 된다

북이 평창과 서울에서 펼친 축하공연에 남녘의 관중은 격정의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다. 북과 남의 가수들이 함께 손잡고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나다》는 8천만이 마음속으로 따라부른 통일의 노래였다. 공연을 본 남조선의 관중들은 너

무도 감격해 《남북이 같이 서있는데 눈물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평창에서는 민족의 힘과 기상을 시위하며 북과 남의 태권도 선수들이 멋진 합동출연장면들을 펼치었다. 그 역센 주먹과 발, 날라랐는 몸동작은 누구도 조선민족을 알보지 말라는 말없는 웨침인것 같았다. 남조선의 태권도총재는 《눈물이 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인데 이렇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난다.》, 《태권도부리는 하나다. 마음만 그치 가까우면 순간에 되는거다. 이때까지 마음이 멀어있었지만 이젠 가까워졌으니 《그날》을 빨리 보게 될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흔히 손을 잡을 때 사람들사이에 정이 흐르고 마음이 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범상한 의미로만 새길수 없는 북과 남의 상봉이었고 뜨거울 악수였다.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예돌이켜보면 벼를 깔고 살을 에

죽이다. 《수년만에 북동포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실려서 어제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가르쳐주려고 아

이들까지 데리고왔다.》는 남조선의 한 여성, 《가슴이 뭉클하고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언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 한 느낌이다. 통일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자는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갈마든다.》고 피력한 강선민족을 알보지 말라는 말없는 웨침인것 같았다. 남조선의 태권도총재는 《눈물이 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인데 이렇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난다.》, 《태권도부리는 하나다. 마음만 그치 가까우면 순간에 되는거다. 이때까지 마음이 멀어있었지만 이젠 가까워졌으니 《그날》을 빨리 보게 될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단일팀을 무어 경기장을 누비고 북웅원단, 남녘관중이 한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다!》를 웨칠 때 경기장안은 이미 하나의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

만나면 정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갈라져 살수 없는, 통일이 없는는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가 조선민

본사기자 김련옥





설 명 절 에 함 께 있 는 북 남 의 소원

오늘은 설명절이다. 설명절하면 음력 정월초하루를 기뻐하며 쇠는 민속명절로서 우리 겨레가 즐겨맞는 가장 큰 민속명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설명절을 쇠온것은 고조선시대 비탄한 고대국가시기부터라고 한다. 그후 설명절이라는 세나라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어져 전통적인 풍습으로 고착되어 큰 규모로 진행되어왔다. 이날을 맞으며 집안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나무나 학 등 십장생그림을 그려 벽장이나 병풍에 붙여 명절분위기를 돋우었으며 설옷(설빔, 세장)과 설음식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당일에는 먼저 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으며 떡국, 찰떡, 설기떡과 같은 특색있는 음식들과 여러 가지 당과류, 과일, 술 등을 차려놓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먹거나 세배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도 하였는데 윷놀이와 장기놀이, 어린이들의 연피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해마다 맛과 보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설명절풍습이지만 올해의 설명절은 유다르다.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남조선에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있기때문이다. 잘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

회를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되도록 하려고 고위급대표단은 물론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 배우들의 열정에 넘친 공연이 남녘겨레 가슴마다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후더운 감정을 새겨주고 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과 남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개막식에 공동입장하였다.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으로 무어진 단일팀이

훌륭한 경기모습들을 펼쳐보이며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 민족의 위상이 과시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에 맞이하는 설명절이어서 더 의미가 있고 감동도 깊은 설날일것이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선반도에 이는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것이 뜻깊은 이 설명절 북과 남의 겨레가 함께 있는 소원이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우리 나라의 4계절가운데 제일먼저 찾아드는데 봄이다. 그리고 한해의 민속명절가운데서 제일먼저 맞는것은 설이다. 설날은 한해의 첫날이자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므로 다가오는것이 잘 느껴지지만 봄이 오는것은 쉬이 알리지 않는다. 설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여 꽃이 피는것이 아니며 계절의 차이에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가뭇바람이 여전히 힘겨우며 추위를 몰아오고 동장군이 물러가지 않으니 고요하고있다. 그러나 귀를 강구면 두껍게 언 얼음밀로 돌돌 흐르는 산골짜기의 시내물소리가 들려와 봄이 오는것을 알 수 있다. 시내가의 버들강아지에 물이 올라 한껏 부풀며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로 갓난기순같은 어린 싹들이 솟아난다.

나루가지들에게도 싹이 트고 꽃망울이 움푹돌망 달린다. 봄은 이렇게 얼음밀로, 추위속으로 서서히 소리없이 찾아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잡는 것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자 한해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래서 설명절부터 시작하여 정월대보름, 일군날, 삼월삼짇날 등 봄철에 맞는 민속명절들도 다 봄철농사와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다. 본사기자

봄이 시작되는 설날

정월 초하루부터 즐겨 부른 《달거리》

어로부터 우리 겨레는 음력 정월 초하루날부터 《달거리》를 즐겨 불렀다. 《달거리》는 일년월두달을 차례로 뽑아가면서 생활을 반영하는 시가 한 형태이다. 월령체가라고도 한다. 정월로부터 설날에 이르는 열두달의 매 달을 각각 한 절로 하여 보통 12개의 분절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시가형식이다. 작품에 따라 머릿시가 붙어서 13개의 분절로 된것도 있다. 《달거리》의 매개 절은 대체로 그달의 자연조건과 기후조건, 그달에 하게 되는

농사일과 민속행사 및 민속놀이 등을 반영하면서 그와 결부하여 작품이 보여주려는 주제사상을 정서적으로 강조하는것이 특징적이다. 《삼중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달거리》형식의 노래들은 고구려때부터 창작된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전해지고있는 《달거리》의 대표적작품들은 《동동》, 《농가월령가》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달거리》의 일부 절을 적는다. 정월에는 시해문안

설빔 새옷 떨쳐입고 떡국도 먹어보세 오고 가는 덕담으로 찬바람도 더워지네 이월에는 송편떡 나이만큼 잡수시오 아이들은 연 피우고 장년들은 농사차비 연장부러 마련하세 ... 노래의 가사는 지방에 따라 여러 갈래가 있고 선율이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예를 든것이 관서지방에서 불리워진 대표적인 가락이다. 본사기자

인사말에 비끼 설맛이 풍경

어로부터 레의도덕이 밝은 우리 겨레는 설날이 오면 부모님들과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에게 새해에 행복하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하며 따뜻한 인사말을 나누었다. ... 《올해엔 꼭 일이 잘될것세.》 《새해에는 떡돌같은 아들을 보게나.》 《좋은 총각 만나 시집가라구.》 설날아침에 따뜻한 인사말 주고받는 미풍속은 오늘날 공화국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나날이 활짝 꽃피어고있다. 설명절이 오면 누구나 부모님들과 이웃들,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설인사를 드리곤한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설명절날 통통거리에 웃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살고있는 엄기수선생의 가정에도 설인사를 하러 제자등이 찾아왔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

부 강좌장 교수 박사인 엄기수선생은 교육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강령진전에 의한 폴리클린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할것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요구되는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공로많은 교육자, 과학자이다. 예순고개에 이른 나이에 충충의 활력에 넘쳐 교육사업에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그는 못사람들과 제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즐거운 설명절날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설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시어 오래오래 젊어계십시오.》 《새해에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설명절날 나이와 생활에 맞는 좋은 말을 골라 설인사를 나누고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후더워지고 서로의 친근감, 사회의 화목과 단합이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을 경제강국건설과 과학연구사업에서의 더 큰 위훈과 기적 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이렇듯 에로부터 레의를 귀중히 여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말풍습이 사회적으로 증시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활짝 꽃피어나는 우리의 설명절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다음해 떡국은 어디서

한 대가정에 부실한 머느리가 들어왔다. 설명절이 되어 온 집안식구가 모여앉아 떡국을 먹고있는데 부실한 머느리가 식글뽕글 웃으면서 말했다. 《지난해 설에는 친정집에서 떡국을 먹었는데 올해에는 이 집에 와서 또 떡네! 명년설에는 누구네 집에 가서 떡국을 먹게 되겠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남편은 입이 쓰거웃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머느리를 흘려 보며 말했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야! 앞으로 아들딸을 낳아 기우면서 한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해!》 부실한 머느리는 그 말을 들더니 꿀꺽거리며 울기 시작하였다. 식구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애야, 왜 우느냐?》 시어머니가 물었다. 《또 애기를 낳아야 하나요? 더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친정에 있을 때 애기를 낳았다가 혼났어요!》

설날 그믐날과 관천칠 십구, 습담

◆ 설날 그믐날밤에 자면는 십이산다. 설날 그믐날밤에 뭘수룩 아이들을 늦게까지 안재우기 위해서 에로부터 일러오던 말. ◆ 설날 그믐날 시루 열으러 다니기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는 설날 그믐날에 남의 집에 시루를 띄어다니는 것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공언히 벌버리는 경우를 비웃어 이르는 말. ◆ 설날 그믐날에 흰쌀떡 맞듯 설날 그믐날에 흰쌀떡이 떡에 맞듯이 몹시 두들겨맞는 모양을 비겨 이르는 말. ◆ 설날이 열아홉이라도 시루 놓이지 않았다. 설날이 열아홉개가 있어도 마음에 차지않고 모자라겠다는 뜻으로 기일을 아무리 늦추어주어도 일이 될 것같지 않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설날 그믐날 개밥 퍼 주듯 시집 못가고 또 한해를 보내는 늙은 처녀가 화집에게 개밥을 퍼주듯도록 퍼주었다는데서 무엇을 대증없이 복쪽 퍼주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겨맞는 모양을 비겨 이르는 말. ◆ 설날이 열아홉이라도 시루 놓이지 않았다. 설날이 열아홉개가 있어도 마음에 차지않고 모자라겠다는 뜻으로 기일을 아무리 늦추어주어도 일이 될 것같지 않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설날 그믐날 개밥 퍼 주듯 시집 못가고 또 한해를 보내는 늙은 처녀가 화집에게 개밥을 퍼주듯도록 퍼주었다는데서 무엇을 대증없이 복쪽 퍼주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사화 론 개 (1)

글 김교식, 그림 박봉혁

많은 이들이 풀잎들에 맺혀 반짝이는 아침이다. 해님이 따스한 빛을 내리보내어 등처럼 봄분을 쌓아올린 무덤을 살들히 쏟아준다. 새로 생겨난 그 무덤앞에는 한 젊은 녀인이 말없이 꿇어앉아 있다. 녀인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다. 방금 그는 시비와 함께 모나고 반듯한 상석우에 간소한 제사를 차려놓은 것이다. 녀인은 약주를 잔이 넘치게 찻할 부어 자신님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 녀인은 순창기생 문개이다. 문개는 지금 여기 진주 망진산기슭에 안장한 의병장 최경회의 무덤앞에서 삼일제를 지내고있는것이다. 임진왜란이 한창인 계사년(1593년) 음력 6월에 최경회는 두번째로 벌어진 진주성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한잔의 술을 정중히 올린 문개는 미어져오는듯 한 가슴속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상석앞에 꿇어앉아 울음 을 터뜨린다. 그 곡성은 가없이 맑게 개인 한여름 하늘가 저 멀리로 거칠없이 울려 퍼진다. 시비 송월이의 두발에도 줄줄이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아이고 호- 아이고 호-》 툭툭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한동안 처량하게 울안에 메어리쳤다. 이윽고 먼저 눈물을 거둔 송월이 문개곶으로 바투 다가

가서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 그만하세요. 이러신다시 떠나가신 나으리께서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왜 죽었다들 성안에 죽었다들봐요. 그놈들이 들으면 수상히 여겨 달려들수 있으니 이젠 그만하시와요. 네, 아씨-》 이윽하여 문개는 울음을 터친던 때와 마찬가지로 문득 곡성을 멈추었다. 그리고 약간 험클어진것 같은 옷매무시를 바로잡고서 무덤앞에 다스곳이 앉았다. 벌써 나으리가 가신 후여러기를 굶었던 전혀 시장을 느끼지 않았다. 문개는 무덤의 흠을 점도록 어루살다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맑았다. 그가 최경회를 만나던 때도 하늘은 티없이 맑았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몇해전의 화창한 봄날, 진라도 남민 통단의 밤나무숲속에 서 큰 궁술겨루기놀이기가 벌어졌다. 이 고을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궁술겨루기를 하고나서 주연을 마련하여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것은 몇백년 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지방풍속으로서 하나의 년례행사처럼 되어왔다. 그날 남원부사는 진보다 궁술겨루기를 더 크게 조직하였다. 이겨루기에는 본고을부사를 비롯하여 관관, 교수 등 고을안의 관

는 장수로서야 그쯤한 무에가 무슨 자랑으로 뉘던 말씀이요.》 이 말을 기다리리라도 한듯 풍악소리가 울려더니 흥에 겨운 기녀들의 가부가 시작되었다. 최경회는 기녀들이 검무를 추면서 제법 무사처럼 날라람있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수줍음으로 빙그레 웃었다. 문개는 그의 곁에 앉던 체가 앉아 약주를 따르고 안주도 섬겨주면서 말없이 그의 인품을 저울질해보았다. 균형잡힌 무인다운 튼튼한 체

었다. 이렇게 첫 상봉에서 정을 들인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차츰 좀더 가까워졌고 마침내는 부부의 정의를 맺게까지 되었다. 그후 아기가 자간한 정분은 날로 깊어갔다. 달밝은 어느 가을밤이었다. 문개는 정취가 무르녹는 음률의 세계에 잠겨 가야금의 줄을 튕기고있었다. 그윽한 그 음조로 고풍한 가을밤을 살들히 흔들어주던 문개는 별안간 최경회의 뛰어난 미술솜씨가 생각나서

《그럼 나으리는 저의 가야금기법이 나으리의 활쏘기 기예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구-》 《아- 일년 제를 어린아이같이 넘보시고 놀리시네. 회롱회롱도 분수가 있지 어저 남야장부의 무예보다 나자의 음률기예가 더 우위에 놓인다고 할수 있겠나요.》 《무에는 누구나 힘써 노력하고 맘을 많이 흘릴질 결심으로 꾸준히 련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다면 소기의 목적한바를 성취할수가 있는것일세. 하지만 가야금의 요묘한 기예는 결심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네.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은 한번 해보리라 마음먹고 나서도 어렵거든. 허허...》 《아니 그럼 정력을 들이는것만큼 또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내 보기에는 기질을 타고나야 하는것 같네. 즉 천품의 재주가 있어야 하지. 전조에는 황거손이나 김복산, 정법, 허오계, 리승린과 석인성 등이 모두 가야금으로 당대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한때 그들의 신묘한 기법도 한갓 손재간이 아니라 타고난 천품과 쏟아붓는 혼신의 정력이 손끝까지 전달되어 비로소 그렇게 높은 경지에 이른것이라고 생각하네. 천부의 재주가 없다면 결코 음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것일세. 내 가재의 가야금을 들이 치는 것은 자네가 그런 뛰어난 재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구, 젊은 폐기와 기백이 넘쳐흐르는 검검게 탄 빛검검검한 얼굴, 피리가 웃음으로 뻗어오른 절은 눈썹밑에서 흑요석같이 번득이는 눈동자, 틀스틀게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는 품도 늘 종쟁같은 관관나무부메이만을 상대해오던 문개에게는 더없이 생신하게 느껴졌다. 문개는 차츰 긴장감과 경계심도 풀려 병사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정히 주고받

가야금줄우로 나는듯이 달리던 손을 멈추었다. 《나으리 활재주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칼소리 기재주도 그러시고...》 최경회는 빙그레 웃고 도리질을 하였다. 《활이야 부지런히 익혀려고 애써 노력하면 그쯤이야 누구나 쉽게 익힐질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어저 자네의 가야금재주에 비기겠나...》